

시기심의 정체를 밝혀라

Reveal your jealousy

마가복음 9장 38-50절

막9:38-50

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족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 (없음)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 (없음)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

1. 잠언 27장 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기과 질투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자신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좋은 일인데, 제자들이 이를 반대한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위에 있는 18절을 읽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3. 제자들은 자신들도 하지 못한 것을 해낸 ‘그 귀신 쫓아낸 사람’을 아무래도 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요, 야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40). 시기심이 우리 공동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고 온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다윗을 사울과 비교하며 칭송을 합니다. 시기가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서부터 일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연구해봅시다.

5.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나요(삼상18:9)?
6. 여러분은 손흥민이나 오스카상을 받은 할리우드 여배우가 부럽나요? 그들을 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반면에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7. 잠언 14장 30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8. 시기심의 기원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야고보서 3:14-16)
이에 비추어,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9. 시기심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야고보서는 말씀해주었습니다.
악한 영이 배후의 핵심이라면, 그것의 정반대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질투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시기심이 눈녹듯이 사라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봅시다.
10.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그를 지지하며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복은 요나단의 자녀 므비보셋에게 돌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11. 시기심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봅시다. 혹은 ‘시기심’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